
I. 관종별 도서관 현황

1. 공공도서관 현황 / 10
2. 대학도서관 현황 / 12
3. 학교도서관 현황 / 18
4. 전문·특수도서관 현황 / 23

1

공공도서관 현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근대적 공공도서관이 태동할 때부터의 현상이긴 하나 1991년 도서관 정책이 당시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될 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못한 까닭에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이원화는 도서관 정책 수행과 도서관간 상호협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행정체제 일원화는 도서관계에 가장 핵심적 현안사항으로 남아있다. 다만, 이 경우 일원화의 실천적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시설 및 자료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471개관이다. 1991년 이전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문화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서관 확충 정책을 시행한 이유 등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서관이 더 많아졌다.

소속별 공공도서관 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	계
238	222	11	471

전국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 수는 2003년 말 현재 34,467,396책으로 1관당 장서 수는 73,179책이고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0.71책이다

2) 인력 및 재정

도서관 1관당 평균 직원 수는 1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도서관은 확충되고 있는데 비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사서직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수치는 IFLA 권장기준(인구 2,500명당 1인)의 30%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사서직원 수는 약 2,000명으로 전체 직원의 38%이며 1관당 4.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은 전액 국고나 지방비로부터 조달되고 있을 뿐 선진국과 같은 기부금 지원은 거의 없다.

2003년도 운영비는 총 354,575,606천원이며 이는 1관당 752,814,45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충당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자료구입비는 총 46,387,628천원으로 총액대비 13%에 머물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 제공 능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보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조항은 도서관정책의 문화부 이관 시 제정된 1991년 도서관진흥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 전문적 서비스 기관인 공공도서관을 전문가의 식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정신이 담겨 있다. 이 규정은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의 “공립의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1997년부터는 전국의 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이 전부 사서직이 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불과 10여명(전체의 약 5%)에 불과하던 사서직 관장이 1997년 이후 급증하여 2000년 말 53.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46.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공공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민간 위탁 등을 통해 행정직 등으로 보임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으로 변경하는 등 각처에서 변경 시도가 있었다. 또한 서울·경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도서관을 신규 개관하면서 아예 그 명칭을 정보문화센터 등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임케 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회피하고자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명칭이 ‘도서관’이 아닌 시설이 과연 공공도서관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확실한 기준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못하여 도서관 정책적 측면에도 여러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민간위탁 운영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일 경우에 주로 발생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공공도서관이 위탁대상기관으로 예시되고 시·군·구의 도서관 운영 전문성 미흡,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한 신규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위탁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신설도서관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2001년 목포시립도서관의 경우처럼 기존 도서관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탁기관들이 시설관리공단 등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운영이 파행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 민간위탁은 공공도서관의 공익성 훼손, 공공시설물의 사유화, 비사서직의 관장 보임, 사서직원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도서관 명칭 변경 등 우려할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은 신중을 기해야할 사안이다.

6) 사립공공도서관

우리나라의 사립공공도서관은 숫자도 적고

공립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현황

연도	전 체			지방자치단체			교 육 청		
	계	사서직	행정직	계	사서직	행정직	계	사서직	행정직
1995	312	20	292	93	1	92	219	19	200
		6.4	93.6		1.1	98.9		8.7	91.3
1996	334	81	253	114	7	107	220	74	146
		24.3	75.7		6.1	93.9		33.6	66.4
1997	354	175	179	133	17	116	221	158	63
		49.4	50.6		12.8	87.2		71.5	28.5
1998	366	203	163	149	25	124	217	178	39
		55.5	44.5		16.8	83.2		82.0	18.0
1999	382	216	166	163	30	133	219	186	33
		56.5	43.5		18.4	81.6		84.9	15.1
2000	399	213	186	180	32	148	219	181	38
		53.4	46.6		17.8	82.2		82.6	17.4
2001	411	212	199	191	29	162	220	183	37
		51.6	48.4		15.2	84.8		83.2	16.8
2002	432	215	217	212	35	177	220	180	40
		49.8	50.2		16.5	83.5		81.8	18.2
2003	460	213	247	238	39	199	222	174	48
		46.3	53.7		16.4	73.6		78.4	21.6

※ 각 항목의 위 칸은 관수, 아래 칸은 비율(%)을 나타냄

4) 도서관 명칭 변경

1998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구조조정과 평생학습진흥을 이유로 4개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케 된 계기가 되었다. 2001년에는 강원도 교육청이 5개 도서관을 평생교육정보관

그 운영도 공립공공도서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공공도서관이 커다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운영주체(개인, 단체)의 투입예산의 부족, 운영의 전문성 결

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는 총11개 관이다.

2

대학도서관 현황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로서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술자료와 디지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링크, 다운로드, 정리, 보존, 축적과 연구 및 학습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학술자료의 제공,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자료와 시설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등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3년 대학도서관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활동들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동향에 가름하고자 한다.

1) 시설 및 자료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수는 총 436개관으로 국·공립대학이 60개관, 사립대학이 198개관, 전문대학도서관이 157개관을 차지하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약 40%를 점하고 있어 대학의 편중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서 수는 다른 관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지만 연평균 자료 구입비가 선진국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첨단매체나 학술잡지의 수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설치 현황

구분 시·도	도서관수	국공립	사립	전문	각종
서울	77	9	54	12	2
부산	29	5	12	12	-
대구	13	2	4	7	-
인천	12	2	4	5	1
광주	16	2	7	7	-
대전	24	7	9	5	3
울산	2	-	1	1	-
경기	77	2	37	33	5
강원	21	4	8	9	-
충북	19	5	7	6	1
충남	30	3	18	7	2
전북	24	4	8	11	1
전남	24	4	8	10	2
경북	38	3	16	19	-
경남	23	6	4	10	3
제주	6	2	1	3	-
계	435	60	198	157	20

대학도서관 장서 통계

도 서	연속간행물(종)	시청각자료	연간증가책수
90,166,787	360,379	4,356,931	5,166,636

2) 인력

2003년 말 현재 대학도서관의 직원 수는 총 3,825명으로 1관당 8.7명이며 타관에 비해 사서직원 비율이 7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사서직원 현황

	국공립	사립	전문	각종	계
1급 정사서	155	226	30	2	413
2급 정사서	444	1,219	235	22	1,920
준사서	155	170	66	6	397
계	754	1,615	331	30	2,730

3) 운영체제

대학도서관 운영은 대학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부 부처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문제의 기본 책임은 대학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체로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의 부속기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상이 그리 높지 않고 관장도 대학교수의 순환보직 차원에서 임명되고 있어 전문성 측면이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와는 배경이 다르지만 도서관 명칭을 학술정보관 등으로 바꾸는 대학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 이용은 다른 관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학생들의 공부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따라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도 등장하고 있다.

2003년도 총 이용자 수는 13,527,893명이고 자료이용은 29,683,878책이다.

4) 각종 현황

(1) 도서관 신·증축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 시설을 증설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였

는데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4월 포항공과대학교는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과 전산소, 연구정보센터, 통신, 멀티미디어교육 등의 기능을 통합한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7천500평 규모의 '청암학술정보관'을 개관하였다. 이 정보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설계함으로써 미래형 도서관의 전형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본 디자인협회(JCD)로부터 '2003 디자인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앙의 개방형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2층부터 5층의 모든 공간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각 층별 열람실 서가 주변에 휴식공간과 컴퓨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동선을 최적화했다.

9월 인하대학교는 한진 그룹 故 조중훈 회장의 호를 따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7천500평 규모의 '정석학술정보관'을 개관하였는데 가상현실체험관, 멀티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최첨단 시설과 컨벤션센터 등을 갖추었고 '수송물류전문도서관'으로 특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개관식 때 IT, BT, NT분야 첨단기술국제학회를 개최하여 그 자용을 세계의 석학들에게 널리 알렸다.

10월 광주대학교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5천230평 규모의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장애인 열람실, 대학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호심컬렉션, 650평 규모의 전시실 등도 갖추고 있어 복합 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경대학교는 9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3천4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였고, 한편 강릉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농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경대학교 등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거나 완성단계에 있다.

(2) 지식정보격차 해소

천안대학교는 3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향학 열의를 진작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천안시로부터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장애우를 대상으로 도서의 배달과 회수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월 한양대학교는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 및 학습지원센터인 15평 규모의 ‘더불어숲’을 개실하였다. 이 곳에는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곳이라는 뜻에 걸맞게 일반석 6석과 특수석 6석 등 12석의 좌석이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특수 정보검색 단말기와 저시력 독서기, 휠체어용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서울대학교는 전동 및 수동휠체어 각 1대, 휠체어용 열람대 20대, 시각장애우용 도서확대기 1대 등 장애우용 편의기기를 확충하였으며, 조선대학교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5,170평 규모의 도서관을 4월에 개관하면서 1층에 장애인 정보지원실을 배치하여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대구대학교는 전국 44개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소장된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전자도서 등의 서지사항과 소장처를 수록한 「전국 시각장애인 도서관종합목록집」을 1월에 발간하였다. 도서 8만 여종을 수록한 이 목록집은 점자본 15권과 목자본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장애인도서관 사서들은 전용 홈페이지(<http://dulvi.daegu.ac.kr>)에 수시로 도서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3) ‘도서관 보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작권법 중 개정 법률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 28조와 관련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가 2004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도서관계의 문제제기로 그 시행이 2004년 7월 1일 이후로 연기 되었다.

12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있었던 ‘도서관 보상금 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한마디로 울분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제기한 문제 및 요구사항의 요

지는 다음과 같다.

-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면 왜 ‘도서관 보상금 제도’라는 명칭을 쓰는가.
- 복제, 디지털자료의 출력, 전송에 관한 세부내용이 현재 대학 간에 시행되고 있는 상호대차 업무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판매용 단행본, 학위논문 원문에 대한 유통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 사서는 왜 매 건마다 과금을 계산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며, 잘못 처리시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가.
- 과금 시스템을 공유토록 하지 않고 왜 개의 단위 도서관에서 개발하도록 하는가.
- 관내 전송의 개념을 왜 건축물로서의 도서관으로 제한하여 심지어 분관, 분실 까지도 다른 도서관으로 해석하는가.
- 개별 도서관이 개별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서도, 왜 저작권신탁관리제도를 통한 허락을 유도하는가.
-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왜 사단법인에게 있는가.
- 출판된 지 5년의 기준은, 어떠한 법적 기준인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실시기간이라고 하면서 12월 10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그 제도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
- 설명회의 주체가 왜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였는가. 이 제도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상금 산정장치를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게 왜 도서관에서 설치토록 하는가.
- 약정서 체결 계획을 철회하라.
- 도서관보상금제도라는 명칭을 변경하라.
-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라.
- 시행시기를 연기하라.

- 비매품에 대한 저작권은 보상금 기준에서 제외시켜라.

현재 대학도서관측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서관이용자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RFID기반의 디지털 장서관리 시스템 도입

한성대학교는 10월 신축도서관 개관과 함께 라디오파수인식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서관리부문에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다. RFID 시스템이란 바코드가 단지 책을 상징하는 기호만 인식하던 것과는 달리, 자료에 부착된 전자태그(RF Tag)에서 송출하는 무선 신호를 인식기로 읽어들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청구기호, 등록번호 등 자료의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를 서지DB와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자료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며 도서관측면에서 불 때는 장서점검 등도 자동화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자태그가 부착된 장서, 사서용 단말기, 자가반납기, 장서점검기 등을 필요로 한다.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현재 전자태그 가격이 고가인 것이 RFID 시스템 도입의 한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계명대학교는 11월 대구·경북지역 사서들을 중심으로 RFID 기술개요 및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5) 해외 벤치마킹 및 직원 해외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훈련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Stanford University

등 미국의 5개 대학과 6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Griffith University 등 호주의 3개 대학을 13명의 도서관직원이 벤치마킹하였다. 이것은 세계 우수대학의 대학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개선책을 수집하기 위한 대학당국 전체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문대학의 홈페이지를 사전 조사한 후 견학 및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수립한 실행 방안들을 현재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경상대학교는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서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일본 시마네대학을 방문하였고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시마네대학 사서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경상대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분야를 공동 연구하였다. 2004년에는 숭실대학교, 동국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이 해외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6) 대학도서관 개방운동 전개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교도서관의 개방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96개관 중 85개 대학도서관들이 자료와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육구 충족과 지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립대학교도서관(96개관)의 개방현황

대상집단	도서관수 (%)	대상시설	도서관수 (%)
지역주민	85(88.5)	시청각실	49(51.0)
지방자치단체	62(64.6)	세미나실	24(25.0)
교육기관	71(74.0)	회의실	16(16.7)
산업체	66(68.8)	일반열람실	69(71.9)
타 도서관	63(65.6)	자료실	67(70.0)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공유와 정보접근권 운동의 차원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오픈 라이브(Open Library, OLIB)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대학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 초안에

나온 그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 도서관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장애인 도서관 이용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7) 각 협의회 활동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6개 대학 주축으로 창립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현재 50개 회원교로 성장하였으며 2003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음의 내용을 건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 전문 사서사무관 정원을 포함하여 사서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별 총예산에서 도서비 항목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배정해 주도록 한다. 모든 대학이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Web-DB 해외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대학 컨소시엄을 국가 Licence로 구성하도록 한다.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40년사 발간 마무리 작업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구축

회원관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도서관원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2년 16개 대학도서관이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현재 96개 회원교로 성장하였으며 2003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

협의회와 본 협의회와의 통합 모색

-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중 도서관 예산을 분리 지급토록 건의
 - 창립 30주년기념 연구보고서와 사대도협 회지 발간
 - 2001년 개발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 정보화 사회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전문대학만의 독립된 특성과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1996년 6개 대학으로 출발한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디지털시대의 정보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서직무교육에 역점을 둔 한 해였다.

1973년 출범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현재까지 Union Catalog 서비스, DDC(종교분야)분류표 번역 발간, 신학학위논문 원문의 공동제작, 신학저널 분담목록DB 구축 등의 업적을 수행하였다. 2003년에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신학대학교 학술도서관들이 축적한 신학 고급정보를 교회도서관과 공유하여 교회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그 후속 조치로 목회와 신학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회도서관의 역할을 모색 중에 있다.

(8) 사서들의 연구 활동 : 학회, 협회, 협의회 등의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①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2. 21~22)
- 경성대도서관 e-book 서비스 적용 사례 / 변상식(경성대학교)
- 수서업무의 실제 / 김현철(동아대학교)
- 사서의 계속교육 : 부정협과 회원을 위한 제언 / 김창유(동아대학교)
- Z39.50에 대한 일반적 이해 / 황문정(신라대학교)
- 이용자교육 사례발표 / 광창호(인제대학교)
- 울산대학교 도서관 특별회원제도 운영 / 박종국(울산대학교)

- ②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회(5. 17)
 - 대학사 사진자료 화상DB구축에 관한 사례연구 / 김정남(부산대학교)
- ③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학술발표회(5. 24)
 - 저널 수집정책을 위한 전자저널 평가방안 연구 / 이하범(상지대학교)
- ④ 제8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 및 사서직무 교육(5. 22~24)
 - 전문대학도서관 사서의 파워 이미지 메이킹 / 이경자(진주보건대학)
 - 영진전문대학 도서관 전자책 도입 사례 발표 / 정진한(영진전문대학)
 - 무선인터넷 시대의 모바일 서비스 사례 연구 / 김기세(배재대학교)
 - 시설환경의 개선 및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 사례 / 전창호(부산여자대학교)
- ⑤ 2003 신학도서관협의회 하계세미나(6. 23~25)
 - 지식경영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과제 / 백항기(숙명여자대학교)
 - 대학도서관과 전자책 서비스 / 백성규(강남대학교)
- ⑥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9. 25~27)
 -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전에 관한 연구 / 황남구, 최귀숙(포항공과대학교)
 -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 신주영(부산대학교)
- ⑦ 제40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8. 13~14)
 - 효율적 수서 절차와 매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최명순(경북대학교)
 - 디지털 시대 대학도서관의 학술적 위상 / 권희정(경북대학교)
- ⑧ 한국서지학회 추계연구발표회(11. 8)
 - 추사가의 장서에 관한 일고 / 옥영정(영남대학교)

⑨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워크숍(11. 24)

- 신학도서관의 콘텐츠 관리를 모델로 한 교회도서관 자료관리 / 신만섭(합동신학대학원)

(9) 그 외의 활동

동국대학교는 도서관 신축기념행사로 2월 20일부터 3월 28까지 미당 서정주 선생을 기리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전'을 개최하였으며, 경주신라전자도서관을 개통하여 경주·신라와 관계된 문학, 역사, 고고미술, 사상, 신라불교, 관광, 행정 등에 관한 지식정보자원을 웹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안산)는 5월 시 이어짓기 작품공모, 정호승 시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故 구용 김영탁(1992~2001) 선생이 생전에 기증한 해방 이전의 시집 3천여 권 가운데 귀중본 225권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중앙대학교는 2월 이용자 서비스의 통합, 정보의 통합, 검색인터페이스의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형 전자도서관 개통식을 가졌다. 이로써 교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정보의 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정보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 양질의 콘텐츠 구축을 통한 학술자료의 신속한 유통 및 공유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 5월에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가동식 및 원문이미지 문서의 DjVu 적용 등 8개 부분의 구축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전자도서관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하거나 보유 중인 학술지, 연구보고서, 논문, 아카이브(Archives), 미술음악자료, 고서, 오디오, 비디오 등 총 6백9십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전문(full-text)과 동영상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3월 충북대학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어문학 등 4개의 주제별 자료실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65평 규모의 법학도서관, 115평

규모의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는 7월에 30평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신설하였다.

군산대학교는 도서관 특성화의 일환으로 수·해양 분야 참고정보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2004년에는 사이버참고정보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박차를 가할 예정에 있으며, 부산여자대학교는 3월 어린이도서관인 ‘매직라이브러리’를 개설하였는데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은 자주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컴퓨터실, 음악·미술 활동 영역, 과학탐구 영역, 소꿉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 노래방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도구들을 비치하였다. 건양대학교는 8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논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을 또한 학교 밖 건물에 6천 5백여 권의 아동도서와 비디오, CD, DVD 등 3백여 개를 갖춘 아동전용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밭대학교는 11월 30석 규모의 소극장인 ‘Cinema HANBAT’을 개관하였다.

한서대학교는 7월 러시아 장서 4천8백 권을

모아 놓은 ‘에가와 다쿠(江川 卓)문고’를 개관하여 20세기 후반 일본의 러시아 문학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에가와 다쿠는 일본의 러시아 문학자인 전 도쿄(東京)공대 바바 히로시(馬場宏) 교수의 필명이다.

경북대학교는 3월 13일 CCTV 6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강원대학교는 중국 요령대학 도서관과 학술정보 교류협약을 7월 19일 체결하였다. 한편 도서관 개관 50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가진 충남대는 ‘충남대학교 도서관 50년사’를 발간하고, ‘도서관 장기발전계획(2003~2012)’을 수립 발표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이상과 같은 대학도서관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또한 대학당국 및 정부의 육성책이 마련되어야만 바람직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를 관리하는 대학도서관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정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학교도서관 현황

학교도서관의 발전은 전체 도서관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설치율이나 장서, 인력면에서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순수 민간단체인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가칭)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하다.

1) 시설 및 자료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도서관은 2003년 말 현재 9,649개관으로 전체 학교 수 대비 93%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34조는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화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가 교

실 1칸 정도인 도서실 정도의 작은 규모이고 운영현태도 학생들의 자습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

구 분	대상 학교 (A)	설치 학교수 (B)	설치비율 (B/A)
초등학교	5,463	4,779	0.87
중 학교	2,850	2,652	0.93
고등학교	2,031	2,218	1.09
계	10,344	9,649	0.93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수준도 열악하다. 학교도서관 1관당 장서 수는 5,993권,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6.85권 이어서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의 10~20%에 불과할 정도의 낮은 것이다. 특히 장서의 내용은 주로 단행본 위주여서 21세기 첨단시대에 걸 맞는 전자매체나 연속간행물 비치도 극히 저조하다.

2) 인력 및 재정

학교도서관에는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를 두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오히려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2003년 말 현재 전국 사서교사는 217명으로 전체 대비 6.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직원은 대체로 전임사서교사, 다른 과목 담당교사의 겸임 및 비정규직 일반사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3,269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에서 학교도서관에 일반직 사서(학교사서)를 비정규직으로 임용하여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취지나 학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3) 각종 현황

- (1) 1. 5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회보 「학교도서관」 제6호 발행
- (2) 1. 6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년도 초·중·등교육 주요 업무 계획' 발표

- ① 학교도서관 기능 활성화(담당부서 : 조정2과)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 4대 과제(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를 중점 추진하였다.

- ② 독서교육 강화(담당부서 : 학교정책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제고와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 전개 및 국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한 독서교육 방안 모색을 위하여 독서교육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학교(시·도교육청별 초·중·고교 각 1개교 : 총 48개교) 운영, 초·중·고별 도서목록집 제작·보급(초등-대전, 중학교-부산, 고등학교-광주)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장서 현황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도서관수	장 서 수	1관당 장서수	학생1인당 장서수
초등학교	5,463	4,175,626	4,779	28,638,748	5,993	6.85
중 학교	2,850	1,854,641	2,652	13,159,248	4,962	7.09
고등학교	2,031	1,766,529	2,218	13,297,246	5,995	7.52
계	10,344	6,030,267	9,649	41,797,996	4,332	6.93

③ 학교도서관 정보화 지원(담당부서 : 정보화지원담당관실)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디지털자료실'을 단위학교에 구축·운영하여 7차 교육과정의 정보활용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8교씩 130교(국립 2교 포함)에 각각 교당 42,800천원(국고 대 지방비 1:1)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교육청에 도서관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인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별 자료공유,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2004년에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교육청(서울, 대전, 인천, 울산, 충남)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한시적으로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3) 1. 30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 발행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도서관정보화, 이용교육및 정보교육, 도서관활용수업, 독서교육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행했다.

(4) 3. 1 사서교사 42명 신규임용

2003년에 전국적으로 9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총 45명이 임용고사에 최종 합격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8개 교육청에 42명의 신규사서교사가 발령받았다.

경기 교육청	인천 교육청	강원 교육청	충남 교육청	충북 교육청	대구 교육청	부산 교육청	울산 교육청	경북 교육청
8	1	3 (미발령)	2	2	11	3	4	11

(5) 4. 서울중등학교도서관연구회의 명칭이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로 변경

(6) 4.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 교섭안 마련

학교도서관에 대한 단체협약안이 전교조 서울지부 20대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시 교육청에 공식 제출되었다.

제54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 경상운영비의 최소 5%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 도서실 운영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일과시간 중 학교도서관의 상시적인 개방과 수업활용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문정보수준의 원문정보에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은 민간학술데이터베이스를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보급한다.

- 국가전자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학교에서 원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기관과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학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도서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는 겸임되지 않도록 한다.

- 담임업무
- 교과서 업무
- 야간자율학습감독 업무

(7) 4. 10 교육인적자원부 1,259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대상 학교 선정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의 시행을 위

해 각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도서관 리모델링 대상 1,259개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 5,000만원씩 총 600억원(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8) 4. 10~5. 3 ‘제6회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전시회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권장 모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0평 규모의 ‘초·중등학교 도서관 실물관’ 2개가 전시되었다. ‘학교도서관관’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교육부 2002. 7)의 일환으로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학교도서관 발전모습을 실물형태로 구성하여 5,000여권의 장서와 첨단 IT시스템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물 전시가 끝난 각종 가구 및 도서는 관련 업체의 협찬으로 추첨을 통해 학교에 기증하였다. 전시회는 서울(4. 10~13), 전주(4. 17~19), 대구(4. 24~26), 대전(5. 1~3)에서 열렸다.

(9) 4. 11~12 경기문화재단 경기지역 전체 학교사서 워크숍 개최

경기문화재단은 2003년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사서와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관계자추진위원과 운영요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안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 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10) 5. 10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3. 26~4. 19까지 공모 받은 14개 단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위원장 : 도정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표)의 심사(5. 10)를 거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7개 단체에 총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은 주로 학부모 사서도우미 연수, 책 읽고 기증하기, 독서운동 등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부모 단체 등 민간의 실질적 지원과 독서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체 명	사 업 내 용	지원액 (천원)
경남정보사회 연구소	우리 아이들 곁에 살아 숨쉬는 학교도서관을	5,000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학교도서관 활용을 위한 학부모, 교사연수프로그램	5,000
인간성회복 운동추진협의회	학부모 독서지도일기 공모 및 도서기증받기 캠페인	10,000
인천기독교 청년회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 발굴 확산	5,000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부모가 참여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25,000
학교운영위원회 부산학부모 위원협의회	학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우리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 독후감 발표대회 개최	20,000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서도우미 전문교육	30,000
합 계	7개 단체 7개 사업	100,000

(11) 7.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업무가 조정2과에서 정보화지원담당관실로 이관

학교도서관 활성화(리모델링) 사업과 정보화(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담당할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12) 7. 24~25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하계적무연수 실시

연구회는 서울지역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및 행정직, 계약직 사서를 대상으로 포천 산정호수의 한화리조트에서 학교도서관 건축 및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연구회 회보인 「학교도서관」 제7호를 제작 배부하였다.

(13) 7. 28~8. 1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학교도서관 장학전문요원연수 실시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장학사 중심)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학 및 전문 요원의 직무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장학 전문요원연수를 실시하였다.

(14) 9. 16~17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5) 9. 26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제41회 전국 도서관대회 학교도서관 워크숍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제주도 서귀포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교육활동 운영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6) 10. 14~ 24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국외연수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 및 행정직 사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미국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등 선진 학교도서관 방문 연수를 실시하였다.

(17) 11. 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LS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e-book 콘텐츠 서비스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DLS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e-book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 크리스탈 홀에서 개최하여 DLS를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안, e-book 콘텐츠 확보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방안, e-book 콘텐츠 통합서비스 방안, e-book 콘텐츠 이용자 평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8) 11. 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LS 기반 e-book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행

이 보고서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DLS를 기반으로 국가 수준의 전자책 구입 활용 방안과 각급 학교가 생산한 교육자료의 통합망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19) 1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정책 연구 보고서 발행

2003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애로 사항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평가'(연구책임자 : 변우열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를 발표하였다.

(20) 1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발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개발비로 수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공공도서관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방안을 위한 실증적 사례분석 연구'(연구책임자 : 한윤옥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발표하였다.

(21) 12. 18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전시 교육청

이 주관한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가 배재대 학교 스포텍스 홀에서 열리고 자료집 ‘학교도서관을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를 배부하였다.

2003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중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영·활용, 협력·연계, 정보화 등 4개 부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하고 교육부총리상, 교육감상 등을 수여하였다.

(2) 12. 22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서교사 1급·2급 구분

2003년 11월 7일 황우여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서교사 1·2급 자격구분 등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으

로써,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 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서교사 자격구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서교사를 ‘사서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하고,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을 신설하였다.(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사서교사란)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항)

4

전문·특수도서관 현황

전문도서관은 연구기관, 기업체, 금융기관, 언론·방송사 등에 설치된 도서관을 말하며 특수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군부대의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장애인 및 특수 환경에 처한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전문·특수도서관을 같이 묶어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이 분야에 관한 정책적 연구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2003년도 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문·특수도서관 수는 549개관으로 나타나 있으나 작은 규모의 도서실 및 자료실 형태의 도서관들이 많아서 실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체를 포함한 전문

기관·단체들이 조직 및 인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전문도서관들이 폐쇄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지역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도서관은 서울·경기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 전문도서관

(1)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하 ‘의도협’)은 1968년에 전국의 의학도서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현재 총 179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은 의과대학도서관 54개, 병원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272	16	16	12	12	50	7	91	8	8	10	9	3	12	19	4	549

87개, 연구소 도서실 15개, 제약회사 도서실 10개, 그리고 특별회원 13개 등이다.

2003년도 의도협의 주요 사업 및 행사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 및 워크숍, 이사회 4회, 의학도서관장 회의, 전산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의학교육과 도서관의 역할, 의학주제전문사서 도입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등을 발표함으로써 회원들간의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의학분야 정보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협력사업으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학술정보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의학학술지 기사색인 DB를 구축하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운영사업은, MD Consult 컨소시엄에 37개 기관, Harrison's Online DB 컨소시엄에 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의도협은 기관간 업무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자원 공동활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회 장 : 나종구(가톨릭의과대학교)
- 사 무 국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7 영화빌딩 302B호
 - 전 화 : 02-322-5831
 - 팩 스 : 02-322-5832
 - 홈페이지 : <http://www.kmla.or.kr>
 - 이 메 일 : kmla@kmla.or.kr

(2) 국가연구정보협의회

국가연구정보협의회(이하 '국정협')는 2001년에 '문헌정보유통협의회'로 발족되어 2002년 12월 국정협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 현재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등 총

163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과학기술법시행령 제40조 제8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이다. 이를 위하여 회원 상호간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사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도 국정협의 주요 사업 및 활동은 「학술잡지 국가종합목록 on CD-ROM」 발간과 각종 세미나 및 국가연구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 등이다. 학술잡지 국가종합목록 on CD-ROM은 505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방대한 종합목록이며, 웹버전도 동시에 서비스하였다. 또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목록위원회, 자원개발위원회, 정보기술위원회, 기획협력위원회, 상호대차위원회 등이다. 이밖에도 동계워크숍과 정기총회, 하계워크숍과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 회 장 : 정진식(한성대학교)
- 사 무 국
 -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내
 - 전 화 : 02-3299-6102
 - 팩 스 : 02-3299-6109
 - 홈페이지 : <http://www.korina.org>
 - 이 메 일 : korina@kisti.re.kr

(3)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이하 '과정협')는 1972년 '서울지역연구개발단지 도서관실무자협의

회'로 발족되었으나 전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에 현재의 명칭인 과정협으로 개칭되었다. 과정협은 전국의 과학기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정보관리부서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기관간 정보자료의 공동활용, 업무 협력, 정보교환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관리업무 및 소속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현재 회원은 총 73개로서, 정회원 40개, 준회원 17개, 그리고 특별회원 16개 등이다.

2003년도 과정협의 주요 활동은 총회 및 워크숍 개최를 비롯하여 3월 27일에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정보관리협회 3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학술세미나 및 사단법인 출범식을 개최하여 정보서비스 및 정보원 활용의 최신 동향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동 협의회가 30년간 이루어 온 성장과 발자취를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과학기술정보관리의 어제·오늘·내일」을 출간한 것은 큰 업적이었으며, 새로운 홈페이지의 오픈과 동시에 상호대차 기능도 향상하여 회원간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12월에는 과정협 웹 운영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 해외교육훈련 파견 후보자 2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회 장 : 이흥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사 무 국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한국원자력연구소내
 - 전 화 : 042-862-6623
 - 팩 스 : 042-861-9561
 - 홈페이지 : <http://www.stima.or.kr>
 - 이 메 일 : ex-stima@kaeri.re.kr

(4)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이하 '신도협')는 1973

년에 13개교로 발족되어 현재는 가톨릭대학 등 총 50개교의 53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여 신학 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도협은 창립 이래 매년 2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석박사학위논문 CD-ROM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학문헌정보」를 계간으로 출간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소식 등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도 신도협의 주요 사업 및 활동은 각종 세미나 개최와 3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신학 e-book 제작 등이다. 2003년도 여름 세미나를 비롯하여 교회도서관 워크숍과 겨울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통합도서목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 CD-ROM 6차분을 배포하는 한편 7차분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신학분야 e-book을 최초로 제작하여 회원교에 제공함으로써 신학분야 정보원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회 장 : 김희자(총신대학교)
- 사 무 국
 - 주 소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1-1
총신대학교 도서관
 - 전 화 : 02-536-7910
 - 팩 스 : 02-536-7910
 - 홈페이지 : <http://www.ktla.or.kr>
 - 이 메 일 : dskang@chongshin.ac.kr

(5) 지식정보공유협의회

지식정보공유협의회(이하 '지정협')는 1990년에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로 설립되었으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2002년 11월에 협의회의 명칭이 지식정보공유협의회로 변경되었다. 2003년 현재 회원은 일반회원 32개 기관과 특별회원 12개 기관 등 총 44개 회원을 가지고 있다. 지정협은 회

원간 지식정보 공유, 업무 협조, 정보교환, 연구활동, 친목 도모, 권익 보호 등을 통하여 회원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도 지정협의 주요 사업 및 활동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과 총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식정보공유지를 발간하였다. 지정협은 동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체제 정비와 아울러 홈페이지 기능 강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유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회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수차 개최하였으며, 지식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디지털시대의 정보수집 최적화 전략 등을 주제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회 장 : 고희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 무 국
 -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내
 - 전 화 : 02-3299-6006
 - 팩 스 : 02-3299-6109
 - 홈페이지 : <http://www.kirsa.or.kr>

2) 특수도서관

오랜 시간동안 특수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을 의미해오다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반도서관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의 의미로 정의되어진 것은 1987년 도서관법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 내에 특수도서관전문위원회가 2000년 처음 발족되었고,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도서관대회에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런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특수도서관은 도서관계나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보다도 시민단체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크게 발전되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 특수도서관위원회의 육근해 위원장이 IFLA LBS(Library for the Blind Service)의 상임위

원으로 위촉되었다.

(1) 점자도서관

최근 점자도서관은 매년 3, 4개 관씩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3년 한 해에는 8개관이 개관하는 큰 증가를 보였다. 개관된 도서관은 독립형 점자도서관보다는 복지관내 점자도서관(관)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로써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점자도서관은 23개관이다. 이 외에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점자도서관 또는 미등록된 도서관을 합하면 34개소로 증가하였다.

점자도서관의 개관 현황

연도	관수	도 서 관 명
1999	5	한국점자도서관, 부산점자도서관, 대전점자도서관, 광주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2000	9	경북점자도서관, 제주점자도서관, 종달새전화도서관, 서울점자도서관*
2001	13	실로암점자도서관, 대구점자도서관, 경기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시각장애인*
2002	16	인성시각장애인도서관, 부천점자도서관, 하상점자도서관*
2003	23	송파점자도서관, 인천송암점자도서관, 안양점자도서관, 강원점자도서관, 충남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마산점자도서관 *
기타	11	강북점자도서관, 대한적십자사 점자도서관, 동작점자도서관, 마포점자도서관, 산소망 녹음도서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도서관, 성북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갈보리교회 점자도서관, 전남특수도서관, 군산점자녹음도서관, 충북점자도서관

※ *증가된 도서관명만 기록함

※ 이 자료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 등록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일부 도서관의 경우 실제 도서관 봉사를 시작한 연도와 차이가 있음

양적인 증가로 점자도서관이 발전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독립형 점자도서관은 운영 예산에 비해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복지관내 부설 점자도서관은 운영 예산

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복지관이다 보니 도서관의 담당인원은 평균 2명이고, 모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복지관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므로 명확한 도서관의 운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점자도서관의 이런 상황은 2003년 한 해에 크게 양적으로 증가만 했을 뿐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 볼 때 큰 성과가 없었다. 이는 도서관 수의 증가에 따라 특수 자료의 증가가 있기는 하였으나 도서관 간의 중복제작이 더욱 심해졌을 뿐 실제 자료의 증가는 별 차이가 없다. 또한 도서관 간의 중복제작 외에도 베스트셀러 등의 일부 책은 점자와 녹음, DAISY 방식 등으로 전부 출판되므로 실제 출간되는 총 자료는 연간 출판물의 약 2%도 채 되지 않으며, 정기간행물은 31종의 점자 유형과 29종의 카세트테이프 유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제작된 자료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서로 협력해야 할 도서관 간에도 한정된 예산을 두고 반목과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질이 낮은 자료의 출판으로 인해 자원봉사자와 이용자, 도서관 관련 기관들로부터 도서관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도서관의 설치 규정이 1977년 특수교육법에 제정된 것을 이래로 지금까지 상향 조정 없이 적용되다 보니 도서관 등록은 쉽고, 그 수준은 문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도서관의 양적인 증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는 다양해졌다. 우편대출과 이동차량 대출에 머물렀던 이용자 서비스가 택배대출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교실도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마다 개인 참고봉사를 지향하는 움직임 또한 서비스의 다양성을 입증해 준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에서 전국 점자도서관 종합목록을 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에 이관하였고, 이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약 90,000여건의 자료를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도서관 소장 목록을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자도서관 등은 중복제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허나 아직은 신속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간 도서 제작에 있어 중복 제작이 해소된다거나, 이용자가 신간 목록을 검색하거나 할 수 있지 않으므로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3년 저작권법도 개정되었다. “시각장애인 등의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앞을 못보는 사람 즉 전맹에서 신체장애인, 난독증 장애인까지 이용 대상자를 확장시켰다. 여기서 ‘전용기록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따로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자나 점자도서관 관계자는 전용기록 방식은 점자파일 또는 DAISY 파일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점자도서관(실)이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텍스트 도서 또는 MP3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논점으로 남겨져 있다.

(2) 병영도서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1999년부터 병영도서관 건립 운동을 전개해오다가 2003년 중앙일보사 10대사업으로 연중 캠페인을 펼쳐 1월 평택 2함대 전투전단본부의 전단도서관을 시작으로 2003년 한해 동안 병영도서관 10개소, 교도소도서관 1개소, 총 11개소를 개관하였다. 각 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약 3,000여 권정도다.

4월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특수도서관의 관종 범주에 “국가는 각급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병영도서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고, 5월에는 ‘군부대 북스타트 운

동 출범식 및 사랑의 책 꾸러미- 내 젊은 날의 책' 선포식을 가졌다.

개관일시	개관 도서관 명
1. 28	해군 2함대 전단도서관
2. 13	안산경찰서 APM도서관
3. 20	육군병원 열차부대 도서관
4. 19	서울구치소 보라미도서관
5. 27	육군 제 27사단 춤사랑 도서관
6. 27	해병대 흑룡부대 연봉도서관
7. 30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4기동대 사자도서관
9. 17	육군 제 20사단 110개보대대 결전사자도서관
10. 24	해군 3함대 목포해역 방어사령부 삼학도서관
11. 28	육군 제9사단 청도개비도서관
12. 30	국방대학교 진중도서관

(3) 병원도서관

병원도서관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큰 병원도 대체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정이다. 병원도서관의 문제점은 환자들이 책을 빌려 가면 반납하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책 분실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전담 사서가 전문적인 도서관의 형태나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시간제로 운영하거나 하여 실제로 환자가 책을 빌리기 위하여 도서관을 찾았을 때 닫혀 있는 경우도 많다. 명칭 또한 병원도서관과 환자도서관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다.

(4) 교도소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1980년대에 한 독지가가 교도소와 구치소에 도서기증 운동을 펼쳐 전국 각 교도소 도서관의 설치 동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교도소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고 교도소의 교무과에 약간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에서 서울교도소에 보라미도서관을 개관한 것이 교도소 도서관의 개관 현황 전부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형자들은 인권위원회 자료실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2003년 자료 요청 건수를 보면 월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수용자 가운데는 문자해독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2	0	1	3	4	1	8	1	2	8	7	13	50